

교회 목록

신령한 예배
찬양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진리
아름 사랑

주관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방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나니라
(빌립보서 1:21)

대한예수교
창도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3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봉현 편집국장: 이형수

[발표] 오묘한 그 말씀 - 금요집회

십자가의 승리

1부 예수 그리스도

1장 세상의 구원자가 나타나심

- I 세상을 바꾸는 신령한 메시지
- II 성육신하심은 역사적인 사실
- III 성육신과 부활

2장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 I 그 이름 '예수'
- II 그 이름 '그리스도'

3. 천국의 메시지

1) 신성하고 장대한 권위

천국의 메시지는 신성하고 장대한 권위를 지니고 있다.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능있는 것과 같고 저희 사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마 7:29). 이것이 어디 그들만의 반응이겠는가 어느 시대든 예수님의 말씀을 경직할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부터 신성하고 장대한 권위를 느끼게 된다. 메달같이 종교 의식의 권위를 보고 느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나이다 하라"(마 7:46).

이처럼 신성하고 장대한 천국 메시지의 권위는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으로 확실하게 증명되었다. 예수께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것은 천국 메시지의 신성하고 장대한 권위를 확실하게 보여주려 하심이었다(요 2:23, 3:2, 6:14, 9:32-33, 11:47, 12:37, 38).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천국의 메시지를 듣고 구원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이적을 베풀어주었다. 로마의 백부장과 수로보니케 여인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마 8:8, 15:28). 반면에 천국의 메시지를 믿으려는 준비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적을 베풀어주지 않았다. 호기심 뿐, 의심 만으로 표적을 구했던 바리새인들과 사기관들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마 12:38, 39). 이들은 천국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으며, 전능하신 도둑놈이나 사회 풍조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자들에게는 이적을 베풀어주지 않았다. "예수께서 저에게에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함과 자기 천하를 자기 집 외곽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나니 하라하며 자기서는 아무 관능도 행하지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약한데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니라"(막 6:4-5).

주님이 진리하신 천국 메시지가 신성하고 장대한 권위를 지니고 있었으며 주님의 행하신 대로 신성하고 장대한 권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한 주님의 행함임은 이적이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이 하나님께 주신 '행함의 주' 이셨다(행 3:15 참조). 세상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권위의 신성이 주님 몸에서 늘 나타났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결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하고 완악한지! 이러한 사람들은

천국의 메시지가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와 함께 선포되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한다. 천국의 메시지를 듣고 알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2) 놀랍도록 지혜로움 가르침

천국 메시지의 가르침은 놀랍도록 지혜롭다. 예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것의 준비 단계로 구약을 말씀하셨으며 전리의 증거로서 구약을 사용하셨다(요 10:34-36, 눅 20:41~44). 이 얼마나 지혜로운 교훈인가! 또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에도 구약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사용하셨으니, 이것 또한 지혜로운 교훈이다(마 5:17, 눅 24:25-27). 예수께서 수장성 하인을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보라.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가셨고 수장성 하인을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셨으며,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게 하였다. "여자가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마 4:25). 그러자 예수님은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마 4:26)라고 말씀하셨다.

실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놀랍고 또 놀랍다. 주님의 가르침은 순수하게 그리고 겸손히 들으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하고 또 탁월한 설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아름답게 설명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히 내어놓는 것을 버리고 싶어 한다. 이는 정말 우한 것이다. 혹시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분석하고 무시하고 정화하는 자이지 않은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요 5:39-40). 혹시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라고 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자인 현상을 매우도 생생한 그림을 그려 주시며 천국을 설명하셨다(마 13:33). 인간의 삶과 역사도 그러한 비유로 사용하셨다(마 13:11-13).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참으로 변화와 일으키는 메시지이다. 또한 질문 공세를 퍼는 대적들을 향해서는 오히려 반문함으로써 천국을 변호하셨다. 이 또한 지혜로운 가르치심이다(마 22:1-13). 천국의 메시지는 방언적인 동시에 승리적이다(마 12:23-25, 22:17, 20:21, 22:21-45). 특별히 배우기를 열망했던 제자들에게는 자기 자신의 신비를 가르쳐 주셨으니, 이런 점에서든 천국의 메시지는 놀랍도록 지혜로운 가르침이다(마 13:10).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마 17:53).

구약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특별히 주목해 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요 1:14, 18)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글로 쓰여진 말씀, 구약은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요 생명체였다. 그래서 주님은 구약 전체를 통틀어 '성경'(요 10:35)이라고 부르셨던 것이다. 특별히 구약은 그리스도를 반기고 있는 책이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구약의 권위 아래 두셨다(막 4:4). 또한 그리스도는 성경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셨다. 땅에서 마귀와 대적할 때에도 성경을 자신의 무기로 사용하셨다(마 4:4). 또한 그리스도는 성경이 기록된 자에 관한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다(마 5:17, 18).

그러나 이런 성경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참으로 안타깝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도 정작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예수께로는 나아가지 않았다(마 5:39~40). 혹 우리도 성경을 읽고 연구하지만 우리 자신의 정황에 경연하여 직식을 고집하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리에 침착히 앉고 주님에게로 인도되어가 되도록 하자. 그리하여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만 당면히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축복을 받기를 하려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신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자 주셨으므로 세상이 저를 미워하였사오니 나는 세세에 속히 떠나니 내가 세상에 속하여 아들을 보내니 아들이 세상을 만민이 되나이다"(요 17:14).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보라. 참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적대하게 대립하여 세상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 결코 아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세상에 있는 것들과 자기 자신을 영으로 삼고 있는 지 모른다. 혹시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은 아닌가?

1. 사탄들 가운데 -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마치 '자기 가운데' 처해 있는 것과 같으며 '불사르지' 함에 능히 있다(마 24:12, 57:4).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자신의 지존성과 명예와 돈과 인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외관상 아무런 고통 없이 보아도 사탄처럼 부르짖으며 불사르는 자처럼 그리스도인을 위협한다.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믿음과 자기를 구하고 주님을 따르려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우리 자신을 철저히 죽이고 부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길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의 약속이 주어진다. 즉, 참자 주님이 계신 곳, 사지도 않고 사나운 정음도 없는 참 평안의 안식처로 들어가게 된다는 약속이다(시 35:8~9). 하지만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매순간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따라야만 한다. 왜냐하면 여전히 악한 마귀가 우리를 찌르고 두루 다니다 십자가를 찌르며 때리고 때려댄다(마 28).

2. 가마와 찰레를 두른 자들 가운데 -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는 가마와 찰레 그리고 전갈 가운데 거라고 말한다(막 28). 그러면서도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두리려 말하고 권한다. 그렇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의 고백과 삶이 있어도, 비록 가마와 찰레와 전갈 가운데 처해 있어도, 비록 죽음과 길과 십자가의 길이 거룩하고 힘들고, 비록 악마와 마귀의 같이 십자가를 거리고 있어도, 두려워 말고 찬송하기를 담대히 앞으로 전하라.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종극에는 죽음과 사망을 이기며 영원한 생명과 영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런

지 · 난 · 수 · 요 · 예 · 배 · 매 · 시 · 지

그리스도인의 한경 (요 17:12~21)

사실이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졌는가, 이미 두려워 떨며 주저하였는가!

3. 향사로 돌며 -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향사로 돌며 위임 받은 자라고 말한다(마 22:21-23).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사탄들이 오히려 우리를 탐하여 대적하는 것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가장 가까운 통로를 얻어 생명을 행할 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마음 편히 의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탁해야 한다.

4. 이리들 돌며 -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총명한 인간 가운데 처하게 된다고 말한다(막 10:3). 다독 놀리는 사탄성 성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자들을 총명한 인간이 되게 하였다(마 22:28-30).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을 때려내며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 그러므로 장사를 돌리려 하고 있어야 한다. 톱이 좋은 말을 듣고, 권위 있고 말하고, 인간이 총명하고도, 무조건 다 믿어주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 보라 한다. 그리고 위생하는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밝아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라.

5. 하늘의 병거 가운데 -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의 위험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에게에는 아람 군대에 포위되었던 열리마를 보호했던 병거와 병거와 같은 강력한 보호와 후원이 있다. "현세의와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하고 저를 경외하는 자는 도사"(시 34:7). 그러므로 위험을 느끼고 두려움에 쫓길 때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만민이 믿음을 얻고 세상을 행하게 하기에 있다.

6. 주 영의와 하나님께 기도한다 - 그리스도인에게 보호하는 것이 어떤 하늘의 병거보다도 주 영의와 하나님의 사탄성 친화 우리와 함께 계신다(마 28:20). 그러나 분명한 현상이요 실재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성경의 중요와 말씀과 말씀에 담당한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을 위시하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 말 것인가를 83:1. 하나님의 영을 위시하며 그 무엇이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에 안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 말 것인가를 83:1.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주를 두려워하고 알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걷자. 고난의 그 길을 기쁨으로 걷자. 눈물의 그 길을 찬송하여 간다. 이것이 믿음으로 가는 길이다.

HE'S NOT HERE

"And Enoch walked with God; and he was not, for God took him." (Genesis 5:24).

Why isn't Enoch here? He's not here because God took him. Why did God take him? God took him because he walked with Him. This powerful Old Testament verse gives us spiritual insight into the all-important purpose of faith. However, before we consider it, we need to overview chapters four and five of Genesis, where the beginnings of civilization, in general, and the genealogy of Adam, in particular, reveal some astonishing facts. As you know, God created and blessed Adam and Eve, but their disobedience against God's Word led to sin entering the human race and the world in general. It is a sad story in human history, but amazingly one that also has within it a story of hope.

After Adam and Eve left the Garden of Eden, they had two sons, Cain and Abel (4:1-2). The story of Cain and Abel is also quite sad because Cain kills his brother Abel (4:8). The Bible records Cain's descendants: Enoch, Irad, Mehujael, Methushael, and Lamech (4:17-18). So, from Adam to Cain to Lamech are seven generations. Lamech's biblical portion informs us of how the nature of sin rapidly progressed, for he not only killed a man for wounding him, but he also killed a boy for striking him (4:23). If that's not enough, he also boasted that if anyone should try to avenge the murders he would take care of himself seventy-sevenfold without any help from God, such as Cain received (4:24). Cain's descendants were very sinful people.

In place of Abel, God blessed Adam and Eve with another son, Seth (4:25). The Bible records Seth's descendants: Enosh, Kenan, Mahalalel, Jared, and Enoch (5:3-18). So, from Adam to Seth to Enoch are seven generations. The sad story of the sinfulness of Cain's descendants gives way to God's merciful relation with Adam through Seth. It's important to note that when Enosh was born, "men began to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4:26). By the time of Enoch, we can clearly see that Seth's descendants believe and rely on the Lord for their salvation. God's grace continues through Adam's seed. Indeed, "Enoch walked with God; and he was not, for God took him" (5:24). This is God's amazing grace! God gave His people hope in the hopeless situation outside of the Garden of Eden.

Enoch lived to be 365 years old (5:23) before God took him. When he was 65 years old, he became the father of Methuselah (5:21). Methuselah lived to be 969 years old (5:27). He was blessed with the best earthly father. For more than 650 years, he was able to spread the good news that his father didn't die because God took him. The Bible goes on to tell us that Methuselah, at the age of 187, became the father of Lamech (5:26), and Lamech, at the age of 182, became the father of Noah. Although Noah was born after Enoch was taken, he heard the news of his great grandfather (Enoch) from his grandfather (Methuselah) for 600 years.

This wonderful news in the Old Testament is also repeated in the New Testament. The author of Hebrews tells us, "By faith Enoch was taken up so that he would not see death; and he was not found because God took him up; for he obtained the witness that before his being taken up he was pleasing to God. And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Him, for he who comes to God must believe that He is and that He is a rewarder of those who seek Him" (11:5&6). Why is this a key point? Enoch lived by faith. There is hope in Genesis 4 and 5 because people lived by faith. Adam's descendants from Seth to Enoch, and from Enoch to Noah were godly people.

What is your faith like? Let me tell you straight away. If you don't walk with God, you don't have faith. Even if you practice the Christian faith your way, but don't walk with God, your will is not God's order. Many people cry out that they go to church, tithe, pray, faithfully exercise the Ten Commandments, and so on. But are they really hearing the Word of God? Enoch heard God's Word, and he listened. He walked with God. As such, to walk with God you must have faith. Whoever practices real faith has the Bible, and inside their hearts the Holy Spirit abides with them. If you don't walk with God, then you have no faith, no life.

Even Jesus' half brother, Jude, referred to Enoch in his writing about false teachers, "And it was also about these men that Enoch, in the seventh generation from Adam, prophesied, saying, 'Behold, the Lord came with many thousands of His holy ones, to execute judgment upon all, and to convict all the ungodly of all their ungodly deeds which they have done in an ungodly way, and of all the harsh things which ungodly sinners have spoken against Him'" (vv. 14&15). Enoch preached to the people of his day that they had to live with God. Enoch had victory. He was a converted man. Jesus tells us,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he cannot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Jn 3:3). Enoch was born again. Paul tells us in his letter to the Romans,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for it is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reek. For in it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as it is written, 'But the righteous man shall live by faith'" (vv. 16&17). Only faith in the Word of God carries us up and beyond. Only faith in the Word of God makes us righteous. Our will and our way lead us down into darkness. We have to walk with the Holy Spirit. The Word of God has to live in our hearts. We have to obey.

Soon, people are going to say that because of the grace of God Sung is not here because God took him. Do you know that because of the grace of God, because you keep practicing the Word of God, keep obeying the Holy Spirit, wanting to go with God, wanting to walk with God that someday you will not be here because God is going to take you? We find hope in the story of Enoch. "Enoch walked with God; and he was not, for God took him" (Gn 5:24). The term 'walk with God' means not by your will, but by God's Word, His will. The Old and New Testaments verify that Enoch lived by faith. The story of his heavenly ascension shows us the beautiful outcome of walking with God.

My friend, in this sinful world there is Good News, which is the Gospel. This is God's grace! If you accept it and simply obey, like Enoch, then truly some day you are not going to be here because God is going to take you. 🙏

다움주일학교

그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하나님과 동행하시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 5:24)



김성곤 목사

슬픔과 소망이 어우러진 이야기

오늘 본문은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에녹을 데려가셨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이 구약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한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숙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 4, 5장을 간략하게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문명의 시작, 구체적으로 말해서 아담의 계보(系譜)는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전 인류와 온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보다 더 슬픈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정말 매우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 속에는 놀라게도 소망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아담과 하와는 두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 그들이었습니다(4:1,2).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역시 매우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형 가인의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입니다(4:8). 성경에는 가인의 후손들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 이맛, 므후야엘, 므드사엘, 라멕 등등(4:17,18). 아담으로부터 라멕까지 모두 일곱 세대였습니다. 특별히 라멕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우리는 죄의 본성이 얼마나 급속하게 악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라멕은 자기에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 친 소년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23절). 그것도 모자라 만일 누군가 자기에게 복수를 하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이 그 사람에게 77개의 발을 내릴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기까지 했습니다(24절). 그는 가인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보장받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큰 소리를 친 것입니다. 이처럼 가인의 후손들은 매우 죄악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셋의 후손들

아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다시 축복하셨고 아들 셋을 낳게 하셨습니다(4:25). 성경에는 셋의 후손들의 계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노스, 겐난, 마할랄, 야렛, 에녹 등등(5:3~18). 아담으로부터 셋을 거쳐 에녹까지 모두 일곱 세대였습니다. 셋의 계보가 시작되었지만 가인의 후손들이 보여준 죄악의 슬픈 이야기가 끝나고, 셋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공물을 베풀어주셨다는 기쁜 소식이 이어집니다. 에노스가 태어나자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는 성경의 기록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의 시대가 되었을 때에는 셋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뢰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과 동행하시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5:24).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자기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에녹과 그의 후손들

에녹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기 전까지 365세를 살았습니다(5:23). 65세가 되었을 때, 그는 모두셀라를 낳았습니다(5:21). 모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5:27). 모두셀라는 세상에 가장 훌륭한 아버지를 둔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는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650년 동안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모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으며,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고 말합니다(5:25-29). 비록 노아는 에녹이 승천한 후에 태어났지만, 자신의 할아버지 모두셀라로부터 자신의 증조부 에녹에 관한 이야기를 600년 동안 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라 하나님께 나아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5,6). 왜 이것이 중요한 말씀인지 아

시했습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 5장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셋에서 에녹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에녹에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후손들은 믿음으로 사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분이 나름대로 기독교 믿음을 실천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십일조를 내며, 기도 생활도 하고, 십계명을 성실하게 지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참된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모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요 그 마음 안에 성경에서 거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믿음도 생애도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동행의 비결

기껏 신성령에 관한 문제를 다룬 서신사에서 예수님의 형제 유다도 에녹을 언급했습니다. “아담의 칠 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시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سر하도 모든 강박한 믿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리 하시리라 하였느니라”(유 14,15절). 에녹은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에녹은 영적으로 승리를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둔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 에녹은 거둔단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16,17).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아무리 의지해봐도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다만 더욱더 깊은 흑암에 빠질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만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동행의 행복한 결말

얼마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무아무개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은 이 땅에 없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준행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성경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실 것이고 그 결과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에녹의 이야기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과 동행하시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창 5:24).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음을 입증해 줍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리는 바 된 에녹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 곧 복음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에녹처럼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정작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실 것이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 이번 주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9월 22일(월)~9월 30일(화)	인 도	15교구 5지역	이강근
9월 25일(목)~10월 6일(월)	키르기즈스탄	1교구 1지역	이보신
9월 25일(목)~10월 6일(월)	키르기즈스탄	1교구 2지역	이승득

◆ 연재 시역 중인 선교팀

기 간	선교지	팀	팀 장
9월 16일(화)~9월 24일(수)	우즈베키스탄	13교구 7지역	장철규
9월 17일(수)~9월 26일(금)	네 팔	1교구 5지역	김정국

“하나, 둘, 셋 이즈비니체(실례합니다).” 선교지에서 외쳤던 음성이 귓가에 쟁쟁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만났었습니다. “복자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은 선교 기간 동안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임재하셨습니다.

기차길을 유일한 이정표로 삼고, 덜컹거리는 봉고차로 세 시간 넘게 찾았던 사막 속의 작은 마을 “몰라라”에서 우리는 “우리가 몰라서 왔지, 알고는 여기까지 못 왔다”라고 되뇌었습니다. 군데군데 빈 집과 삭막한 모래땅의 외곽별 속에서 팀원들은 땀이라도 살 곳이 있는지,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알고 싶어 사람들에게 묻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사막 속의 민가에서 우리를 맞이하여 집으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신 분은 분명 주님이었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회례와 탄생을 내며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외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들어오게 하여 두 시간 동안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집 할머니의 생신이었습니다. 출발 전 카자흐스탄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뿌리게 해 달라고 금식하였던 기억이 났습니다. 현장 체험이었습니다. 그 날 우리는 두 시간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혼을 움직이는 것은 주님이었습니다. 전단지 가방을 메고 고아원과 목이 아픈 한 노인의 집까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자 그들은 주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들이 영접기도할 때 주님은 팀원 모두에게 주님이 움직이심을 생생하게 보여주셨답니다. 경찰의 단속에도 아랑곳 않고 복음을 전하자 어떤 사역지에서는 오히려 경찰이 우리를 보호하고 넓은 운동장으로 우리를 안내해 동네 청년들과 축구를

허락하신 새 땅

최 미 자 (7교구 3지역, 카자흐스탄)

하게 하였습니다. 이토한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

주님은 차량을 운전하는 ‘유리’ 아저씨도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가 묵었던 숙소의 사람들과 헤어지는 밤에도 이별을 복음의 메시지로 바꾸어 선교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선교란 그곳에 보내심을 받은 전도자로서 그리스도를 말뿐 아니라 삶으로도 보여야 함을 알기에 달강의 지도로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갖고며 사역을 위해 기도했고, 저녁에는 사역평가를 하며 매일의 사역에서 우리의 열심이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나 교회의 방침을 흐트리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모두가 예를 쓰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쌓여갔습니다. 낮에는 여러 유형의 사람을 만나 성경과 전진지를 전하기도 하고 짧은 언어로 말씀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 책을 보라고 하느냐? 그럼 교회는 어디냐? 몇 시에 예배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물어서 그들에게 손짓, 발짓으로 근처에 교회는 없으니 ‘복부터바스’ 집에서 모여 기도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평가회에서 각자가 만난이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웃는 오로지 주님만 아실테니 주님을 믿자고 하였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만년설과 사막이 조각들을 빚어 전시하듯 하는 듯한 행위 예술장이고 해바라기가 핀 농촌 마을의 집 마당과 울타리에 즐비한 꽃들은 우리의 한국 정서와 많이 흡사했습니다. 몇몇 고려인들의 생활 환경이 남아 있는 ‘우즈토베’는 우리들이 가장 많은 대접을 받은 곳이며 그곳에서도 우리는 축복 방문 전도를 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을같이 카자흐스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진리와 은혜는 바다를 넘볼 삼아도 다 못 씹니다. 함께 복음을 전한 11명 모두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 사역지에서 온 편지 |

권사님, 안녕하세요.

어떨습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은 어떨습니까? 권사님 가족식구, 특별히 딸은 어때요? 병원에서 나왔습니까? 내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의 교회 목사님은 축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옆에 권사님과 같은, 또 권사님과 같이 왔던 사람과 같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사님과 같이 전도할 때 내가 은혜를 받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당신들이 간 다음에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안녕하세요,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했습니다. 그 날 영접했던 사람은 없지만 예수에 대해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몇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 당신들이 전도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권사님이 다른이들과 같이 여기서 일주일 동안 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요. 껌처럼 진진 닭고기를 잊지 못할 거예요. 또 권사님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하시는 “반갑습니다!”라는 말도 잊지 못할 거예요.

권사님, 목사님이 당신들의 선교에 대해서 위라고 하였는지 칭찬했는지 어쨌든 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하나님의 치산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권사님, 우리가 함께 있는 동안 잘 못했던 것을 용서해주세요. 할 수 있으면 면지 써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리다 올림

예수님을 믿으세요

함 윤 자 (8교구 1지역, 우크라이나)

처음에는 “예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라며 막연하게 시작했는데 선교지를 정하고 본격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팀 훈련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성경문해에서 내 마음과 가슴을 뜨겁게 역사하심을 느꼈다.

현지가 공부라기 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 먼 나라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최소한의 언어를 배웠다. 약 3개월 동안 합심기도와 언어, 말씀 훈련을 하면서 선교를 가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철저한 인도하심을 체험했다. 전 교인의 뜨거운 기도, 특히 교구와 지역 성도들의 금식기도는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의 입을 열고 담대하게 했다. 이는 모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구속사역을 을 다시금 깨닫고 고백한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순박하고 정도 많았지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다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다. 받은 전도지를 버리는 영혼을 만났을 때와 전도지를 거부하고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귀찮아 하는 영혼을 만났을 때는 낙심되고 안타깝고 그 자리에서 “주여 불쌍히 여겨서 저들을 용서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저들을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키예프에서 여호와의 증인 선전팀들이 엄청난 규모로 대회를 동원하여 3일간 대 집회를 여는 것을 보고 지혜가 부족한 나도 영적 전쟁의 전선감각을 위한 군사인이 승리할 수 있음을 느꼈 수 있었다. 예수의 이름을 알기만 한다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안목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진리를 이 곳에서 복음을 영접한 많은 사람들 도 성경님의 인도하심으로 알아가기를 기도한다.

앞으로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개개인이 다르리라 생각한다. 주님께서 내게 선교의 비전과 선교의 방향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곳까지 보내주신 것을 알 있다.

젊은이들이여! 충현의 젊은이들이여! 일이나 예수님의 증인이 되소서.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님,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대들을 위하여. 예수님, 선교팀을 만난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주세요.

충현 젊은이들이 말하는 ‘십자가’

나는 죄인이다. 끝없는 욕심과 욕망을 머리속에 가득 채워가는 정말 불쌍한 죄인이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특히, 예전에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을 드리는 일보다도 세상에 나아가 리더가 되고, 남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더 좋아하는 불쌍한 인간이었다. 결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척 했었고, 속으로는 내 자신을 더 사랑했다. 모태신앙인 율리아에 걸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구석에 숨겨 두었다. 왜 이렇게 내 자신을 더 믿으려고 했을까? 난 이리나 저리나 불쌍한 죄인인데 말이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여름수련회에서 목사님께서 각자가 죄인임을 고백하라고 하셨다. 나는 평생 기도했었던 어떤 기도보다도 마음 속 깊숙한 데서 오는 진정한 기도를 했었다. 처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내 죄가 씻겼음을 알게 되었다. 항상 모태신앙이라는 테두리에 갇혀 있던 나의 잘못을 회개했다. 내가 낙망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언제나 내 손을 잡고 계셨다는 것을 새삼스레 깨닫으며 귀중한 마음과 더불어 감사함으로 어쩔줄 몰라했다. 귀한 몸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여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나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분께 정말 고개를 들수 없을 만큼 죄송하고 감사하다.

십자가, 인간의 몸으로 딱딱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언덕을 오르셨을 주님을 생각해 본다. 또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는 가시관류관을, 옆구리에는 창을 찔린 예수님,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프다. 예수님도 그러한 고통을 받고 싶으시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죄악투성이로 살아가는 불쌍한 나를 변화시켜 새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비천한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던 것이다. 이 세상 천구들 중 정말 널 사랑해주는 사람일지라도 널 대신해서 죽으라고 한다면 기꺼이 죽어줄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는 나의 죄를 씻어주었다. 나는 내 마음뿐 앞에서 끊임없이 열어 달라고 하신 주님을 뒤로한 채, 내가 제일 잘났고 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공허히 여기시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말끔히 씻어주셨다. 이제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십자가는 나를 변화시켰다. 형식적인 내 신앙 속에서 진정한 예수님을 믿게 해주었다. 십자가가 없다면 내 삶은 무의미하며, 살아가야 할 가치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다. 이 세상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한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나의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 만큼 커다란 십자가는 질 수 없겠지만 예수님을 믿어가는 삶을 살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인해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하하는 영혼들에게 전해야 하겠다. 내 삶을 변화시켜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신 그 십자가를 말이다.

이신혜(장학생)

오직 말씀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4).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수준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좋아하며 이 말씀을 실천하려 노력한다. 심지어 유교인들이나 불교인들도 자신들의 경전에서 이 말씀과 유사한 가르침을 찾아내어 비교하고 서로 같은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그 진의를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행위는 죄사함을 얻는데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다.

사람은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바라보지 못한다. 사람은 삶의 영역 안에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도 항상 삶에 적용시키며 삶을 염두에 둔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죽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셨다. “죽으면 많은 영생을 뿜느니라”(요 12:24). 또한 예수님은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하여 오셨다.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시심이라”(요 12:33). 예수님의 가르침이 삶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성경을 전체로 놓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시금 재검토하자.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죽음에 맞춰져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정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사랑은 이 세상의 현자들도 많이 베풀고 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아”라고 하신 말씀은 고작 그 정도의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자살의 땅에 오라고 계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 마음을 들어 말씀하신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나”(요 3:14).

삶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들은 그대로 율법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십자가를 품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은 그대로 복음을 전하게 만든다. 이 말씀은 오히려 율법을 깨어버린 말씀이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3,44). 즉, 율법의 불완전성을 주장하신 말씀이다. 원수를 사랑할 정도로 수양이 되면 수준 있는 신앙인이고 원수를 용서할 수 없으면 낮은 신앙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요나에게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임을 전하여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하며 그들을 적으로 삼지 않게 된다. 아, 주님은 얼마나 완전한 가르침을 주셨는가!

(권오섭)

이번 인도 나사리 단기전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느꼈던 시간들이었다.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모든 일들이 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음을 느낀다. “이 일이 갑갑히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대하 29:36).

나사리의 영혼들에게 전도지를 주며 한자 한자 읽어 주었던 것,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그들에게 말한 것은 나 자신에게 했던 말이기도 하였다. 내 입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 삶 속에서 진정으로 그러하구나?’라는 질문에 나는 자신있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전도지는 그들에게 주는 것뿐 아니라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도구로도 사용되었다.

이번 회교는 우리 텃밭으로 보면 단기전교이지만 교회적 측면에서 보면 장기전교이다. 회교는 계속 보내기 때문이다. 그러다만 우리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선교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장기전교사들과는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기전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가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리새는 다들 전교를 하는 텃밭은 자신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갔으면 한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사

하나님의 예비하심

강 문 구(대학부)

렘으로 가는데 저지서 무슨 일을 만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안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렘 20:22-24). 이번 단기전교 동안 나에게 가장 많이 와 닿았던 말씀이다. 이때 사도바울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았다. 그도 자살이 무슨 일을 만났지 몰랐다. 단지 그가 알고 있던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결박과 환안이 그를 기다린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런데 나는 부끄럽지만 그러지 못했다. 또한 단기전교를 나가는 팀들이 계속 있고 나 또한 단기전교를 다시 나갈 터이지만 이제 하나님님의 돌보임을 믿고 담대히 나아갔으면 한다.

“나는 두리번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볼랐나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볼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게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사 43:1b-3a).

부드럽게 이끄소서

옥타비아우스 윈슬로우(Octavius Winslow)



오 주여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든 동안
부드럽게 이끄소서
그 골짜기 전도록 명하신 분 주님이시라고
이 역을 몸 짊어짐을 것으로 맺어주는 그 날까지
부드럽게 이끄소서

우리 마음 기운없이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이 땅에서의 삶 끝나는 날
주님의 품에 편히 쉬라 명하소서
천국 천사의 노래 소리 듣고
복된 성도들과 함께 부활하는 그 날까지...

유혹이 살같이 우리를 공격하고
길 잃은 우리 걸길로 헤매일 때
주님의 선하심 우리게 끊임없이 베푸사
주님의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소서

아, 그 날이 이르면
주님의 은혜로 생취한 모든 슬리 기뻐하며
주님의 복으로 우리를 곧 짊어주소서
아, 그 날이 이르면 영원한 찬양만이
주님의 성전에 메아리쳐 울리리라.

고통과 번민으로 지쳐 있을 때
사망의 문턱에 우리 서 있을 때

참고 구절: 그는 목자들이 앞 우리를 먹이시며 어떤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양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사 40:11)

다음 주일 찬송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송은 1897년에 앨버트 벤자민 심프슨(Albert Benjamin Simpson, 1843-1919) 박사가 작사, 작곡했다. 그는 녹스(Knox) 대학을 마친 후, 녹스 장로교회 목사가 되었다. 그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런 중에도 마음 속에 늘 노래가 있었다고 한다. 그는 무디 선생의 비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순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는 말씀을 보고 1881년 "하나님의 최선(God's Best)"이라는 내용의 찬송시를 썼고 그후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17년을 살다가 54세가 되던 해 이 찬송시를 쓰게 되었다.

- 1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것 자라히 즐거우니 하루 하루 한걸음 한걸음씩 그의 발자취를 좇아 언제나 그와 함께 걷네
- 2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것 자라히 안전하니 그의 팔에 나 편히 안기어 그가 인도하는 곳 어디든 따르니 나를 해칠 자 전혀 없으며 나를 상할 자 전혀 없네
- 3절: 한걸음씩 나 예수와 함께 걸리니 한번에 잠깐씩 걸리니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 내겐 없고 내 발은 한걸음씩 기어오를 수 있네
- 4절: 예수여 나를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이끄소서 하루 하루 한걸음 한걸음씩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 언제나 당신과 함께 걷게 하소서

후렴: 한걸음 한걸음 나 예수와 함께 걸리니 날마다 날마다 예수와 함께 걸리니

노래의 분위기는 쉽고 가볍지만 예수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천국이 있다는 확신으로 찬양해야 한다. 첫째, 둘째, 둘째 단(둘째 마디)의 리듬을 유의해서 불러야 한다.

*이 찬송가는 가사만 찬송가를 번역한 것으로 종헌 성도들도 하여금

주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 찬송가와 대조하면서 묵상하시면 복음의 진리가 더욱더 드러날 것입니다.

(찬양위원회)

미룰 수 없는 일

최 귀 훈 (충원전도)



처음 시작은 성경공부였습니다. 성경공부를 하다보니 우리는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기도 하고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복음에 대한 도전을 주기도 하다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서로 합의하기에 이르렀고, 우리가 처음 전도를 시작한 곳 은 지하철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자 역 주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없어 전도할 사람이 있는 장소를 모색하던 중 병원과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연결될 당시만 해도 6-7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병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20명 정도 됩니다.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이 아무래도 지하철역에서 만난 사람들보다는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저희는 병원전도를 시작하게 해 주신 분이 주님이라고 확신합니다. 병원 전도 초기에 만났던 '조덕진'이라는 환자의 경우는 아주 우연히 만났습니다. 병원에서 조덕진 씨의 아내를 만나 가족들이 복음을 모른다는 말을 듣고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덕진 씨는 '크로이즈 헬트 야콥'을 읽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희귀병으로, 꾸준히 복음을 전하여 조덕진 씨를 비롯 한 가족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비록 조덕진 씨는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 영혼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지금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박영숙' 환자도 복음을 듣고 교회에 등록해 지금 새 가족부 있습니다. '박영숙' 성도는 갑상선, 신장, 가슴이 안 좋아 합병증을 앓고 있고 눈도 좋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계속 양육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입원해 있는 사람 중에는 '버거씨'를 앓고 있는 '손석진' 씨가 있습니다. 지금은 병원에 갈 때마다 말씀을 나누며 양육을 하고 있고, 종종 신앙 강증문을 주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사람과 육신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까지도 말이죠. 주의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를 스스로도 죄인임을 인정하고 분명히 죄인임을 밝히며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오직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전도자와의 친분이나 관계가 중심이 되면 곧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종종 실재감을 맛볼 때도 있습니다. 어떤 환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척 하면서 복음보다는 물질이나 선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심지어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망스러워 복음 전하기를 포기할 생각도 해 보지만 곧 '주님은 전적으로 타락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게 무슨 생각인가?' 하고 돌이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한번은 한 스님이 복음을 받아들이니 적이 있는데, 저의 사소한 계산으로 그가 했던 부탁을 그가 죽을 때까지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환자들을 보면 정말로 전도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시가 급한 일입니다. 당장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할수록 내가 전하는 복음에 확신이 생기고 그 믿음이 그대로 내게 이어 됩니다. 전도자는 먼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냥 지식이나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믿음이 생기니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아! 내가 전하는 그 복음 그대로,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고 싶습니다.

새·가·족·을·한·영·할·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132	이관주	1 청년부 우병태(1)	1147	이영호	19 청년부 주은호(2)	1162	이희권	19 청년부 우병태(10)			
1133	이영호	1 청년부 우병태(1)	1148	김두리	19 청년부	1163	이소을	19 청년부			
1134	이병태	1 청년부 김남욱(1)	1149	권민선	19 대학부 이교은(8)	1164	김태은	19 청년부 이우희(4)			
1135	송한자	1 청년부	1150	이영호	19 고등부 박주영(2)	1165	서은희	19 청년부 이우희(4)			
1136	박미향	1 청년부 김희솔(1)	1151	이희재	19 고등부 조혜진(8)	1166	이일규	19 청년부 김경숙(1)			
1137	이태자	2 청년부 김경숙(1)	1152	황윤자	7 고등부 박은진(7)	1167	김은애	19 대학부 이정선(15)			
1138	김진선	4 소망부 이병태(1)	1153	유신아	19 청년부 이원희(4)	1168	김예보(캐나나)	19 대학부 이은주(19)			
1139	정영도	8 청년부 신현숙(1)	1154	권형호	7 청년부 박종호(7)	1169	양은영	19 대학부 최효준(15)			
1140	박윤주	10 청년부 최세진(1)	1155	전현식	8 대학부 김성자(8)	1170	이연경	19 청년부 유현준(8)			
1141	김정현	10 대학부 정순옥(1)	1156	조영진	8 청년부 전윤호(8)	1171	이윤희	19 대학부 최홍만(5)			
1142	조영철	10 대학부 정순옥(1)	1157	박성숙	9 청년부 김순옥(9)	1172	이현주	19 고등부			
1143	송영숙	4 청년부 유현희(14)	1158	유순환	10 청년부 김만중(17)	1173	신주희	19 고등부			
1144	김일문	16 청년부 김양진(12)	1159	김진근	10 대학부	1174	최현아	19 고등부			
1145	김진민	17 청년부 김경민(1)	1160	정성태	15 청년부 전종호(2)	1175	BISHNU	19 최시원			
1146	김현정	19 대학부 김수정(19)	1161	조준원	12 청년부 조혜진(1)	1176	배영	19 최시원			

※ 충원전도의 한 가지가 되는 찬송가는 본연의 2023년 새가족 등록소 오시기 바랍니다.

인도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황영림 (초등부 교사)

성도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사역 가운데 얻은 은혜를 나눌 때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선교 가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담스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3개월간의 훈련과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인도의 살인적인 더위에 대한 소문과 여러가지 불편들이 적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기선교는 포기하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담장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후,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진행되었습니다. 토요기도회와 언어훈련, MT와 성수동 외국인 근로자 전도실습 등의 여러가지 훈련이 있었고 저는 이 모든 훈련에 열심히 참석하였습니다. 함께 훈련에 참석한 팀원들은 나이의 성격이 달랐지만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드디어 인도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진 자로서 빛을 갠 심정으로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땅과 먼지가 뒤범벅이 되어도 아랑곳없이 노방전도, 축조전도, 구원통화와 원지이 찬양과 율동 등으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비록 언어의 한계로 인해 단순히 복음을 전하였지만, 이 복음의 씨앗이 이들의 마음 속에 심겨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를 기도했습니다. 사역 중에 만난 사람들 가운데는 아픈 환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이들이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이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얻기를 기대합니다.

사역 중에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함과 도우심을 느끼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선교현장에서 늘 우리와 함께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임은미 (초등부 교사)

지난 주일에는 가족 연합 예배를 드려 초등부 아이들을 만나지 못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에 아이들이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하며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이처럼 사랑스럽고 예쁜 영혼들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과 함께 어린 영혼들이 제게 맡겨졌습니다. 주신 직분을 감당하여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한 날들이 었게 될 것입니다. 아무 것도 아닌 나에게 한 번이 맡겨졌습니다. 해맑은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 아이들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투명한 유리를 보듯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영혼들을 통하여 나도 그 천진난만한 속으로 빨리 들어가곤 합니다.

한 해 한 해 맡았던 아이들 생각이 납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는 말 잘 듣는 모범생보다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여 더 기도한 아이입니다. 교사의 눈에는 착한 아이들이 좋아보이고, 거친 아이들은 문제있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눈물로 양육하면 그 아이가 가장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리라 믿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교사들의 눈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 아이들에 대하여 신일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한다면 아이의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사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에 대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하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고난은 '전공 필수'

장홍 (목사, 소년부 지도)

어린아이의 회심 * * * * *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영국에 사라 하울리(Sarah Howley)라는 여자 어린이가 살았다. 사라의 아홉살 경에 친구 손에 이끌려 처음 교회에 갔고 처음 설교를 듣게 되었다. 그때 설교자는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였는데, 사라는 그 설교를 듣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감명을 받은 사라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다. 얼마 뒤에 사라는 잠인 29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는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이 때는 이전보다 더 감동을 받아 자신의 영혼에 주시하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자신의 영혼과 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된 이후로 사라는 영원한 지옥의 불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속히 믿을 것을 간절히 바랐다. 특별히 사라는 설교되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기에서 많은 유익을 얻었다."

1600년대 영국에서 일어났던 어린이들의 회심 체험을 기록해 놓은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놀랍지 않겠나! 아홉살, 열살의 어린이가기에 예배 중에 섰어도 복음을 듣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아 자신의 영혼과 구원 문제에 광창히 전념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모든 과정이 정말 놀랍지 않은가! 물론, 참 신자가 된 사람들이 모두 어린이나이에 복음을 깨닫고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참 신자들 중에는 이처럼 어린나이에 복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어린 사루엘도 일찍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전하게 되지 않았던가! 신약 성경에 보면 어린 디모데도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은혜 안에서 자라지 않았던가! 이런 사례들을 볼때, 어린이들에게도 뚜렷한 은혜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어린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 자의 것이니라"(막 10:14).

교회 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배우는 모든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거듭남과 영적 성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단순히 성경 배우기를 조금 좋아하거나 찬송 부르게 좋아하거나 예배를 참 드리는 것 뿐이나, 어린 학생들이 참으로 복음을 깨닫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전심으로 간구하자.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교회 학교에서 십자가 복음을 더 선명하게 전하도록 하자. 천국 일꾼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이것이 아니겠는가!

(초등부 교사 황영림 목사)

처음 천국교회에 부임했을 때 얼마간은 인천에서 통근했다.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침에 부지런히 서둘러야 했다. 교회 옆 사택으로 이사한 지금 생각해보니 꽤 피곤했던 일상(日常)이었다. 그런데도 그때의 아침이 지금의 아침보다 더 풍성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간단한 운동도 하고 걸길 안에서 성경과 책을 읽으며 유익한 하루를 시작했던 기억이 난다.

편안함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독(毒)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은 편안함을 조절하지 못하면 나약해지기 때문이다. 서양 속담에 "우유를 배달하지 마시는 사람보다는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말이 있다. 건강하고 우유를 배달시켜 마시는 사람이 우유도 안 먹고 배달만 하는 사람보다 건강지 못하다는 것은 편안함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편안함은 경계의 대상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편안함은 사탄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영적 편안함은 경계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고난이 유익하다고 고백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한 이로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시 119:71). 그리스도의 법칙 안에서 고난은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고난의 과정을 겪지 않고 사용된 적은 없다. 모세에게 40년의 광야생활은 고난이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녔던 그 고난의 세월은 다윗을 더욱 주께 의지하도록 만들었다.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바울이 당한 고난은 바울로 하여금 더욱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훈련 항목이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전공 필수' 과목이다. 전공 필수 과목은 '학점'을 받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을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 하보다는 적극적으로 부딪히지 하지 않겠는가? 고난을 즐기며 받아들이자. 묵묵히 고난을 맞이하고 있노라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고난의 기쁨을 느껴 보았는가? 아니면 고난을 부끄러워하는가?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사생자이고 하나님의 관심 밖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경계는 다 가는 것이니 너희에게 없으면 사탄의 음모가 참아들이 내가니라"(히 12:8).

요즘 같이 바쁜 세상에 성경 읽기와 기도는 고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말씀 묵상과 기도는 성도의 에너지 공급원이다. 그러므로 이런 당당한 훈련을 고난이라 생각하지 않길 원한다. 우리 교회는 주의 날을 기다리며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의연하게 걷기를 나는 소망한다.

교 회 소 식

모임

1. 권사 4씨 월례회
일시: 24일(수) 수요일 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2. 남녀 전도부 2차 영성 훈련
일시: 23일(화) 19:00
장소: 갈릴리움
3. 삼식대상: 각 교구 전도지회 임원 및 전 회원
참신도회 월례회
일시: 26일(금) 18:00(17:00/식사, 만나촌)
장소: 벤틀리홀

결론

1. 유용석 권유동은 성도, 김옥기 권사의 아들, 2교구와 영혼자 열매인 딸로 성도, 김성애 다교점사의 딸/9월 27일(토) 15:00 삼성 해당을 1층 특별(2호선 삼성역 7번 출구, 서울메이시 이용)

주 소 병

1. 김희철 집사(8교구)
서울 경진구 구의5동 207-27호 3층 ☎ 02-457-4602

◆ 2003년도 제2차 청지기 훈련

일 시: 2003월 10월 15일(수) ~ 10월 17일(금)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장 소: 충현교회 본당

강 사: 김성관 위임목사

◆ 주간성경공부 · 찬양대원양성부 교육과정 변경

마태복음 제1교과 301호 요한복음 제1교과 501호
발표부서 제1교과 300호 히브리서 제1교과 401호

찬양대원양성부 제1교과 304호

◆ 제 29회 신혼가정부를 위한 축인 담을 허시오 (벧 2:14)

일 시: 2003년 10월 29일(목) ~ 10월 31일(토)
장 소: 충현교회
대 상: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문 의: 교육관 206호

9월 28일(주) 재해구제현금 식사

교회는 금번 태풍 (제비)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재해구제현금을 9월 28일(주일) 1~5부 예배 시에 하기로 했다.

교회는 구제현금의 액수에 상관없이 재해 당한 지역에 있는 본 교단 노회에 소속된 교회를 직접 찾아가 '비해 교회 복구', '부근 주민에 대한 주·부식 지원' 등의 구제활동을 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본 교회 봉사위원회의 산하의 '재난구제대'에서는 지난 주 목요일 이미 현장을 방문, 답사하였고 금주에도 몇 군데를 답사하기로 하였다. 구제활동 지역은 경남 함안, 거제 지역과 강원도 지역이 될 예정이다. 교회는 지난 해에도 재해 지역 현장을 찾아가 8,500만원을 들여 이러한 재난구제활동을 실시하였다. 온 교우들은 국가적으로도 당한 재난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헌금 및 실제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주 새벽기도회 담당

	22(월)	23(화)	24(수)	25(목)	26(금)	27(토)	28(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김종구	김성관/홍현식	한치원/김인술	장 훈/조석구	임현덕/신진길	이희식/김경자	위관당/이수경

예배 담당안내 (9/24-9/28)

날짜	예배	예배 전향	사 회	기 도	설 교
9/24	수요일		정현민	양병자	거듭난 자의 언어(골 4:2-6) 김성관 목사
9/24	수요일		장종신	장영태	성령의 속건(골 3:11-16) 박인기 목사
9/26	금요일	특별찬양 (알토 이성민/경찰전도회 여성중앙단(12교구))	김영훈		김성관 목사
9/28	주일 I		최종철	김종구	그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라(창 5:2) 하종철 목사
9/28	주일 II	연류관 가지고 외/올라라 강선재(암바루 오케스트라)	고광환	창영일	그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라(창 5:2) 김성관 목사
9/28	주일 III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잔잔하게 외/브니엘 이상중장단(지도: 김남욱)	류병희	박진일	그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라(창 5:2) 김성관 목사
9/28	주일 IV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외/소프라노 유승연(전원 찬양대 솔로리스트)	임현덕	권명옥	그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라(창 5:2) 나광영 목사
9/28	주일 V	저 넓은 곳을 향하여 외/비올라 오미가(고동부 오케스트라)	장 훈	전종민	그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라(창 5:2) 권명옥 목사
9/28	주일찬양		김익환	이성식	그의 이름의 능력(사 53:4-6) 김성관 목사

충현기도의향

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에서 통지하심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경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사.

②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혼에 대한 1차적 열정과 경건한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③ 성도와 안수식,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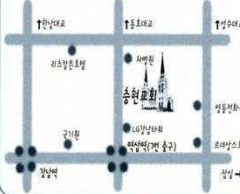
④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지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체 있는 교회로 되게 하소서.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⑥ 교구별 대신자 전도와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민족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소서.

⑦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축복과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중언이 되게 하여 주소사.

교회 오시는 길



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 성 관

■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서장진 박인기
신앙부 신부부 신부부 신부부 신부부

이성기 류병희 이종철 김영철 이국근
신부부 신부부 신부부 신부부 신부부

김교섭 이대환 신교래 김성호 나광영
신부부 신부부 신부부 신부부 신부부

정진호 김용덕 이성호 김경환 위관당
신부부 신부부 신부부 신부부 신부부

김민환 김성주 장 훈 임현덕 이희식
신부부 신부부 신부부 신부부 신부부

최종철 하종철 안치원 이태복 정중신
신부부 신부부 신부부 신부부 신부부

양재웅 이성진 조주호 최성규 이계영
신부부 신부부 신부부 신부부 신부부

■ 전도목사 이정철 ■ 남침도사 이영희 (신도회)
이정철 신동호 윤인숙 한영준 김연식
신부부 신부부 신부부 신부부 신부부

■ 어전도사
홍순애 이국경 김갑자 안태준 김경연
신부부 신부부 신부부 신부부 신부부

조옥자 강덕철 김경진 장재호 최문심
신부부 신부부 신부부 신부부 신부부

전호희 김성주 김경자 이수경
신부부 신부부 신부부 신부부 신부부

■ 찬양감독 김명구 ■ 전일지자 서순성
김명구 김명구 김명구 김명구 김명구

■ 전일지자 김순연
김순연 김순연 김순연 김순연 김순연

■ 단기선교 강기영(신도회)
강기영 강기영 강기영 강기영 강기영

■ 협찬선교사 최효성 (신도회)
최효성 최효성 최효성 최효성 최효성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IV 오후 1:00(외국인 동성회 예배)	본 당
	V 오후 3:00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주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본 당
금요일집회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목회소식	오전 11:00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11:00	본당 앞 출발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교육관 110호
	II 오전 10:50	
	III 오전 12:30	
	IV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V 오전 12:30	
유 아 부	I 오전 9:00	제2교육관 1층
	II 오전 10:50	
	III 오전 12:30	
	IV 오전 10:50	교육관 307호
	V 오전 12:30	
유 치 부	I 오전 9:00	교육관 407호
	II 오전 10:50	
	III 오전 12:30	
	IV 오전 10:50	교육관 507호
	V 오전 12:30	
중 동 부	I 오전 9:00	교육관 301호
	II 오전 10:50	
	III 오전 12:30	
	IV 오전 10:50	교육관 401호
	V 오전 12:30	
중 고 부	I 오전 9:00	교육관 501호
	II 오전 10:50	
	III 오전 12:30	
	IV 오전 10:50	제2교육관 4층
	V 오전 12:30	
대 학 부	I 오전 9:00	제2교육관 4층
	II 오전 10:50	
	III 오전 12:30	
	IV 오전 10:50	제2교육관 4층
	V 오전 12:30	
청 년 부	I 오전 9:00	제2교육관 4층
	II 오전 10:50	
	III 오전 12:30	
	IV 오전 10:50	제2교육관 4층
	V 오전 12:30	

오류 1시: 드리는 주일 1시 예배는 소위(영아, 유아, 초등, 청소년, 청년, 중년, 노인)로 동시 열립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 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 clock Worship Service.